

# 漁民의 意識構造調査

張 設 鎬\*

## <目 次>

- |                |              |
|----------------|--------------|
| I. 序 言         | 3. 公害에 대한 意識 |
| II. 調査의 概要     | 4. 漁船에 대한 意識 |
| III. 漁民의 意識構造  | IV. 要 約      |
| 1. 漁村生活에 대한 意識 | V. 結 論       |
| 2. 漁業에 대한 意識   |              |

## I. 序 言

漁村은 漁民의 主生活經濟圈이며 祖上傳來의 生業으로서 漁民들은 漁業을 營爲하고 있다. 그러나 1960年代 이래 우리나라 經濟의 高度成長은 漁民의 生活環境과 漁業環境에 많은 變化를 招來하였다.

高度經濟成長과 그의 制約性은 漁村環境이나 漁業環境을 破壞함으로써 漁場의 喪失과 漁業의 再生産條件에 현저한 影響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 최근의 石油波動과 世界經濟의 不況은 漁村經濟의 붕괴와 漁業經營의 위기를 더욱 가증하고 있다. 이러한 漁業環境의 變化에 수반하여 漁民의 經濟意識 곧 意識構造도 현저히 變모하고 있다.

여기에서 變모하여 가는 漁民의 意識構造를 파악하고 漁業生産의 기반을 명백히 함으로써 金후의 漁業生産力 확보나 漁業成長政策의 방향설정에 기여코자 本 調査를 계획하게 되었다.

## II. 調査의 概要

本 調査는 1981年 6月 10日에서 10月 30日 사이에 質問紙調査를 하고 또한 部分

\* 釜山水産大學 教授

的으로는 探問調査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완하였다.

質問紙調査는 전국 1,440개의 漁村契에서 1명씩 無意抽出한 대상자에 調査票를 우송하여 회수하였다. 그 도별 배포수와 회수율은 다음 <表·1>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 평균회수율은 20%이며 절대수는 295부에 불과했다. 그 중에서 유독 충남이 5.9%로서 가장 저조하였고 다음은 경기도의 15.6% 전남의 18.7% 등을 제외한 기타 도에서는 20% 이상의 회수율을 나타내고 있다.

<表·1> 質問紙의 배포 및 회수상황

구분	지역	경 기	강 원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합 계
배 포 수		90	65	84	53	642	124	311	71	1,440
회 수 수		14	19	5	11	120	25	81	20	295
회 수 율		15.6	29.2	5.9	20.7	18.7	20.1	26	28.2	20.0

### Ⅲ. 漁民의 意識構造

#### 1. 漁村生活에 대한 意識

설문 1: 당신은 이 지역(부락)에서 산 지 몇년이 되었습니까?

- ① 출생이후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다 67.8%
- ② 20년전부터 살고 있다 13.2%
- ③ 10년전부터 살고 있다 9.1%
- ④ 해방이후 살고 있다 5.4%
- ⑤ 5년전부터 살고 있다 2.4%
- ⑥ 6.25 이후 살고 있다 1.4%
- ⑦ 7년전부터 살고 있다 0.7%

우리나라 漁民의 대부분(88.8%)은 當該漁村에서 20년 이상 거주하면서 漁業을 祖上專來의 天職으로 생각하고 生業이나 家業으로서 이어 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 이내)에도 계속 漁村으로 전입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복잡한 도시 생활 보다는 漁村이 살기 좋은 고장이라는 의미에서도 있겠지만 연고지로서 또는 漁業에 관련되는 사업상의 목적에서 전입하는 것 같다. 그것은 새로 전입하는 漁業者의 대부분이 고령자로서 젊은 층의 離村현상과 대조되는 점에서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전입자가 전출자를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漁業人口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경기, 전북, 충남, 경북지역에서는 최근 전입자가 나타나 있지 않으며 또한 강원, 전북, 경남지역에서는 6.25 직후의 전입자가 나타나 있지 않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이미 재정착지(주로 도시)로 전출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설문 2 : 당신은 지금의 어촌(어촌의 직장 또는 거주지)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53.7%
- ② 나쁘다고 생각한다 24.8%
- ③ 잘 모르겠다 21.5%

여기에서 우리나라 漁民의 과반수 이상이 현재까지는 漁村生活에 대하여 滿足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불만이나 회의속에 할 수 없이 생활하는 漁民도 거의 반수 가까이 있다. 이것은 금후의 漁村社會에 각종의 變化요인으로서 작용할 잠재력이라 하겠다.

설문 2-1 : 어촌이 좋은 이유는?

- ① 오래 산 곳이기 때문이다 40.5%
- ② 어업이 좋고 하기 쉬운 고이다 28.0%
- ③ 주민의 인간성이 좋다 13.8%
- ④ 환경이 좋다 11.9%
- ⑤ 대도시가 가까와 편리하다 3.0%
- ⑥ 직장이나 환경이 좋다 0.7%
- ⑦ 기타 2.1%

현재 漁村에 거주하고 있는 대다수의 漁民은 地緣과 人緣 및 몸에 익은 職業으로서의 漁業을 先祖代代로 傳承하여 家業 또는 天職으로서 생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복잡한 도시 문명 생활보다는 비록 영세하여 수입은 적을지라도 정답고 공기좋은 漁村環境이 좋아 살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쉽게 漁村을 포기하고 전업하거나 전출(이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설문 2-2 : 어촌이 나쁜 이유는?

- ① 장래성이 없다 34%

- ② 지리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이다 20.4%
- ③ 일터인 바다의 환경이 나쁘고 불황때문이다 15.0%
- ④ 생활하기가 고되다 14.3%
- ⑤ 일터(취업처)가 적다 14.3%
- ⑥ 기타 2.0%

사업으로서 漁業의 부진과 環境의 劣惡性을 들고 있다. 이러한 불만속에 漁村에서 거주한다는 것은 영세하기 때문에 이동하지 못하는 것인지 혹은 우유부단하여 단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은 이동가능성이 있는 잠재력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 같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불만속에서 漁村(거주지)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 소박한 漁村民의 特色일지도 모른다.

설문 2-3 : 잘 모르겠다는 이유는?

- ① 지역이 협소하여 곤란한 때가 많다 40%
- ② 어디가나 생활하기는 마찬가지다 36.5%
- ③ 오래 살아 정든 곳이나 먹고 살 수가 없다 21.2%
- ④ 기타 2.3%

漁村民은 행동반경(생활권)의 협소성과 생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숙명으로 여겨 체념속에 생활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보수와 현대와의 틈바구니에서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漁村民은 전통을 숭상하는 보수적인 생활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環境變化와 漁業의 전망마저 밝지 못한 위협앞에 經濟的인 면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자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고 하겠다.

설문 3 : 당신은 매일의 생활에서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해 보았으면」 하는 일이나 이러한 지식 기술을 습득하여 보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까?

- ① 있다 96.1%
- ② 없다 3.2%
- ③ 모르겠다 0.7%

거의 全漁村民은 무엇인가 變化에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前項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傳統을 숭상하는 보수적인 생활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環境變化와 漁業의 전망마저 밝지 못한 위협앞에 어떻게 하든 經濟的인 어려움을 극복할 의욕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충남과 전북의 漁民들에게는 그러한 變化에의 대응요구가 적은 것 같다.

설문 3-1: 하고 있다는 경우,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 ① 새로운 어업기술의 습득 48.5%
- ② 양식기술의 습득 36.6%
- ③ 수산가공기술의 습득 9.0%
- ④ 자동차 운전면허의 습득 2.0%
- ⑤ 무선사자자격의 획득 1.4%
- ⑥ 기타 2.5%

高度經濟成長에 따른 각종 기술습득에 의하여 취업과 소득증대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는 강한 욕구를 알 수 있다. 그것도 漁村民이기 때문에 漁業環境의 變化에 적응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습득을 희망하는 者가 전체의 85%로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적으로는 강원, 경북, 제주 등 漁船漁業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새로운 漁業 기술습득 희망자가 많고, 養殖業이 발달되고 있거나 그 立地條件이 좋은 전북, 전남, 경남지역에서는 역시 養殖技術습득에 관심을 크게 나타내고 있었다.

설문 4: 당신은 부락내의 각종 모임(집회)에 출석하고 있습니까?

- ① 출석하고 있다 99%
- ② 출석하지 않는다 1%

漁業民들은 地域社會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므로서 전통적인 공동사회 협동사회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설문 4-1: 출석하고 있는 집회의 이름은?

- ① 어촌제의 정기총회 22.6%
- ② 부락총회 20.2%
- ③ 반상회 19.2%
- ④ 임시총회 17.7%
- ⑤ 수협총회 7.7%
- ⑥ 어촌제 이사회 7.5%
- ⑦ 수협이사회 1.7%
- ⑧ 기타 3.4%

漁村民의 사회 참여는 역시 그들의 생활과 직결되고 있는 漁村地域의 經濟단체나 부락 및 통반등 지역사회 공동체에 거의 한정되고 있다고 하겠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漁村民(家口主)은 1인당 평균 3~4종류의 각종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설문 5 : 당신은 아들 딸들이 장래 이 부락에서 살기를 희망합니까?

- ① 희망한다 54.7%
- ② 희망하지 않는다 39.1%
- ③ 잘 모르겠다 6.2%

漁民들은 자식들과 같이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과반수이상이나 희망하지 않는 사람도 약 40%정도 된다는 것은 漁村사회도 現代의 핵가족제도에 젖어 들어 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현대화의 물결은 경남, 전남, 강원, 경기 충남등 漁業발달지역의 漁民들 사이에서 현저히 나타나 있다.

설문 5-1 : 장래 어촌에 살기를 희망하는 이유는?

- ① 같이 살기를 원하지만 선택은 아이들의 자유의사에 맡긴다 40.1%
- ② 향토의 발전을 위해 젊은 층의 정주를 바란다 14.1%
- ③ 장남은 같이 살고 차남부터는 그들의 자유에 맡기겠다 10.2%
- ④ 조상의 땅을 지켜주기 위해서이다 10.0%
- ⑤ 젊을 때는 도시에 노후에는 어촌이 좋다 7.3%
- ⑥ 정든 땅이 좋다 6.4%
- ⑦ 생활안정에 희망이 있다 2.9%
- ⑧ 어촌 중심의 생활을 계속하기 바란다 2.6%
- ⑨ 아이들과 살며 노후를 부탁하고 싶다 2.6%
- ⑩ 통근하더라도 고향에 살기를 원한다 1.2%
- ⑪ 기타 2.6%

대다수의 漁村民들은 좋은 싫든 가능하면 자식들이 祖上傳來의 땅을 지키면서 漁業을 하며 家系를 계승하여 같이 살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선택은 본인의 의사에 맡기는 민주적 사고를 가진 사람도 많다.

이러한 것은 전남, 경남을 비롯하여 경북, 강원, 제주등 漁業이 발달한 지역 漁村民에게서 강하게 나타나 있다.

설문 5-2 : 같이 살기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는?

- ① 젊은 층은 전업하여 나가는 것이 좋다 25.5%
- ② 어촌을 뜨고 안뜨고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맡긴다 25.0%
- ③ 어업보다는 타 업종이 좋다 16.1%
- ④ 어업에는 장래성이 없다 14.7%
- ⑤ 어업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감소되는 것이 좋다 8.8%
- ⑥ 후계자 한 명만 두고 나가는 것이 어촌인구 밀집을 방지할 수 있다 4.9%
- ⑦ 다시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나갔다 오는 것이 좋다 2.5%
- ⑧ 기타 2.5%

우리나라 漁村民은 비록 문화의 소외지역에 생활하고 있지만 자식들에 대한 교육관, 직업관에 대하여 상당히 폭넓고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것이 漁業의 장래성에 대한 비관적 사고에 의존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漁業의 安定化에 의하여 자식들의 離村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설문 5-3 : 모르겠다는 이유는?

- ① 어촌에 남고 안남고는 본인의 희망에 달려 있다 53.5%
- ② 어촌에서는 장래의 생활이 곤란해 진다 25.6%
- ③ 여러가지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좋다 12.8%
- ④ 누군가 한 사람은 남기를 원하고 있다 8.1%

漁村民에게서는 이미 過去와 같은 강력한 家夫長制는 사라지고 없으며 개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또한 變化하는 사회에의 적응을 후세들에게 당부하며 이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하겠다.

설문 6 : 당신은 앞으로도 계속 이 어촌에 살고 싶습니까?

- ① 계속 산다 95.1%
- ② 살고 싶지 않다 3.5%
- ③ 무응답 1.4%

현재의 漁村民은 거의 전부가 當該地域에 계속 살고 싶어하고 극소수자만이 살고 싶어하지 않는다.

설문 6-1 : 계속 살고 싶다는 이유는?

- ① 일할 수 있는 동안 어촌에서 일하고 싶다 24.1%
- ② 지금 와서 타지로 가기 싫다 22.3%

- |                        |       |      |    |
|------------------------|-------|------|----|
| ③ 어업도 하고 살기 좋다         | 14.4% | ⑧ 기타 | 1% |
| ④ 어업을 계속하고 싶다          | 12.5% |      |    |
| ⑤ 조상의 땅을 지키고 싶다        | 10.0% |      |    |
| ⑥ 나이와 건강이 전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 9.7%  |      |    |
| ⑦ 서로의 마음이 잘 통한다        | 6.0%  |      |    |

漁村民은 생활에의 變化에 많이 시달려 왔기 때문인지 다른 항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안정과 정착에 대하여 강한 의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漁業이 아주 좋아서가 아니고 생활의 變化가 두렵고 거기에 연령상의 이유도 있기 때문에 계속 살 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문 7 : 부락내에 있는 큰 집과 작은 집과의 긴밀한 접촉은?

- ① 계속하고 있다 97.3%  
 ② 하고 있지 않다 2.7%

漁村民은 예전과 별로 달라진 바가 없는 大家族關係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 7-1 : 있다면 그 회수는?

- ① 수시 접촉한다 45.8%  
 ② 매일 접촉한다 23.5%  
 ③ 며칠만에 한다 15.5%  
 ④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정도한다 11.2%  
 ⑤ 한 달에 한 번 정도한다 4.0%

큰집 작은 집과의 접촉은 특별한 계획이나 일보다도 수시 또는 매일 틈이 나는 대로 찾아보고 내왕하는 전통적인 유대關係를 아직도 계속하고 있다.

설문 7-2 : 큰 집, 작은 집등 친척일가 이외의 집과도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습니까?

- ① 하고 있다 90.5%  
 ② 하고 있지 않다 9.5%

漁村民의 이웃과의 접촉도 家族關係와 마찬가지로 隣保和親의 전통적인 사고에 지배되고 있다.

설문 7-3 : 부락내에 있는 어떤 집과 협업하고 있습니까?



① 하고 있다 75.2%

② 하고 있지 않다 24.8%

漁村民은 家族關係 이외에 經濟關係에서는 이웃들과 協同하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많다.

설문 7-4 : 누구와 협업하고 있습니까?

① 같은 어업을 하는 이웃끼리 61.4%

② 인정 많고 사람 좋은 이웃끼리 25.0%

③ 존계하는 이웃끼리 7.4%

④ 다른 업자간에 5.1%

⑤ 돈 많은 집과 1.1%

협업은 家族關係보다도 이해관계가 유사한 동종업체간이 많고 기타 人間關係나 資本關係가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 8 : 당신들의 장래 문제에 대해서는 주로 누구와 상담하고 있습니까?

① 가족하고 한다. 19.6%

② 어촌계장하고 한다. 15.6%

③ 수협조합장과 한다. 13.8%

④ 친척중 유력자와 한다. 13.5%

⑤ 부모와 한다. 12.9%

⑥ 자기 혼자 결정한다. 10.7%

⑦ 아는 분과 상담한다. 7.6%

⑧ 큰 집의 어른과 한다. 4.3%

⑨ 직장의 상사 또는 동료와 한다. 2.0%

漁村民에 있어서 주요사항(문제)에 대한 상담 또는 협의는 家族등 血緣關係를 중심으로 하나 漁村의 지도층과도 많이 한다. 漁業등 事業關係의 상의는 주로 水協組合長, 漁村契長 등 漁民指導者들과 하고 있으며 금후 이들에 대한 역할이 점점 증대될 것이 예상된다.

설문 9 : 당신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부락의 관례(풍속)에 배반되더라도 그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락의 관례에 따라야만사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추진해야 한다     | 40.4% |
| ② 경우에 따라서 한다  | 33.3% |
| ③ 관례에 따른다     | 17.5% |
| ④ 좀 변명하기 어색하다 | 2.1%  |
| ⑤ 잘 모르겠다      | 6.7%  |

앞에서도 기술하였던 바와 같이 漁村民의 일반적인 職業意識, 地域意識, 家族關係意識에서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면이 강하다. 그러나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관례와 전통보다는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기우는 진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설문 10 : 다음 중에서 당신의 집에 있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       |          |      |
|--------|-------|----------|------|
| ① 텔레비전 | 45.5% | ⑤ 주권     | 1.9% |
| ② 전화   | 20.2% | ⑥ 자가용자동차 | 0.7% |
| ③ 냉장고  | 19.9% | ⑦ 트럭     | 0.6% |
| ④ 경운기  | 7.8%  | ⑧ 기타     | 3.4% |

텔레비전, 전화기, 냉장고의 보급율이 비교적 높으나 특히 텔레비전의 보급율이 현저히 높다. 이의 분포는 漁村지역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 이는 그 동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農漁村電化사업의 성과로 생각된다. 이편 이러한 것의 보급율이 비교적 높은 것은 漁村의 生活水準이 크게 향상되어 가고 있음을 뜻한다.

경운기는 農業과 겸업을 하는 漁民이 많은 관계이며 전국적으로 고루 보급되고 있으나 충남, 전북지방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반면 전남 및 경기도에 그 소유자가 많이 나타나 있다.

기타 전남, 경남지역에서는 자가용자동차나 트럭소유자도 나타나 있다. 또한 證券所有관계는 충남, 전북 경북을 제외한 各道에서 나타나 있으나 사실은 전국 각 지역(道)에 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설문 11 : 당신의 전 세대원의 일년간의 총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 |             |       |
|-------------|-------|
| ① 100~150만원 | 16.4% |
| ② 150~200만원 | 14.1% |
| ③ 200~250만원 | 14.1% |
| ④ 350~400만원 | 12.1% |
| ⑤ 250~300만원 | 11.3% |
| ⑥ 50~100만원  | 8.6%  |

⑦ 500만원이상 7.8%

⑧ 300~350만원 7.4%

⑨ 400~500만원 4.3%

⑩ 50만원미만 3.9%

여기에서 漁村民의 세대당 연간 총수입은 300만원(25만원/월)이하의 계층이 대부분(68.1%)이고 그 중에서도 250만원(20만원/월)이하의 계층이 절반가까이(44.6%) 포함되어 있으므로 漁村民의 저소득현상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 경남지역에서는 50만원이하 계층에서 최고 500만원 이상 계층까지 비교적 각 계층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나 제주, 충남, 전북, 경기 및 강원지역에서는 100만원 이상에서 400만원의 계층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므로 전자에 비하여 세대간의 격차가 비교적 적게 나타나 있다.

## 2. 漁業에 대한 意識

설문 12: 당신이 현재 하고 있는 어업 양식업은 어떤 것입니까?

- |                 |           |
|-----------------|-----------|
| ① 해태·미역양식       | 36.5%     |
| ② 유자망           | 12.6%     |
| ③ 연승어업          | 12.3%     |
| ④ 굴·피조개 양식      | 11.2%     |
| ⑤ 채낚기           | 6.1%      |
| ⑥ 정치망 및 공동어업(각) | 4.7%(9.4) |
| ⑦ 자망            | 3.2%      |
| ⑧ 연안 통발         | 2.9%      |
| ⑨ 기타 어업         | 4.0%      |
| ⑩ 연안안강망         | 1.1%      |
| ⑪ 기선형망          | 0.7%      |

전국의 沿岸漁村에서는 대체로 養殖業과 漁業이 반반 정도로 분포하고 있으므로 균형유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漁業은 주로 小規模漁業이며 그 중에서도 낚시 漁業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있다. 이것은 앞의 漁家所得계층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沿岸漁民의 영세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지역적으로는 西海岸지역과 제주지역에서는 業種이 비교적 단조롭고 경남·북, 전남지역에서는 業種이 다양하다. 그리고 定置網, 채낚기, 자망, 연안통발등 沿岸 漁業으로서 비교적 규모가 큰 業種은 西海岸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색

이다.

설문 12-1 : 당신은 어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                             |       |
|-----------------------------|-------|
| ① 어업은 할 보람이 있다              | 47.7% |
| ② 다른 직업이 더 좋다               | 25.3% |
| ③ 어떤 직업이든 그것을 자기의 천분으로 생각한다 | 14.4% |
| ④ 무응답                       | 12.6% |

漁業을 숙명적으로나 단순한 職業觀에서가 아니고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漁民들이 약 절반에 가깝다는 것이 漁村에서는 아직도 매력있는 業種으로서 漁業을 영위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이것은 漁業關係者로서는 다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점은 漁業을 정의할 때 희망이 있거나 없거나 할 수 없이 漁業에 종사해야하고 종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숙명론적 관점에서 정의하여 왔던 종래의 사고를 시정하여야 한다는 이유가 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겠다.

설문 12-2 : 어업의 장래성은?

- |                         |       |
|-------------------------|-------|
| ① 희망이 있다                | 36.5% |
| ② 앞으로 어업만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다 | 34.4% |
| ③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뿐이다      | 22.5% |
| ④ 무응답                   | 6.6%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漁業이 보람있는 職業이라는 것을 인식하는면이 적은 것과 같이 그의 장래성에 대해서도 대체로 회의적인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곧 漁村民들은 漁業이라는 사업만으로는 금후 家計유지가 곤란할 것이므로 다른 부업(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 점은 금후 漁村經濟構造의 變化요인으로서 주목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설문 12-2 : 후계자로서는?

- |                       |       |
|-----------------------|-------|
| ① 아이들에게 어업을 시키고 싶지 않다 | 55.8% |
| ②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 20.7% |
| ③ 아이들에게 어업을 시키고 싶다    | 14.4% |
| ④ 무응답                 | 9.1%  |

현재의 漁村民은 자기대까지는 漁業을 祖上傳來의 天職으로써 보람있는 職業으로

생각하여 왔지만 고도산업사회에 있어서 다양한 職業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단계에 있어서는 漁業을 구태여 자식들에게까지 제승시켜야 할 職業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고에 지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漁業後繼者 問題는 금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 점은 漁業産業으로서의 계속성문제와 더불어 산업균형이라는 국가적차원에서의 과제로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설문12-4 : 약 5년전과 비교하여 지금의 어업상태는 ?

- ① 좋아졌다 38.6%
- ② 나빠졌다 37.9%
- ③ 전과 같다 17.2%
- ④ 무응답 6.3%

漁村民자신들의 생각으로서는 최근 5년동안에 沿岸漁業의 經營상태는 거의 담보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나빠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지역별로는 전남, 경북, 제주지역의 漁業상태는 다소 좋아진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대하여 경기, 강원, 전북, 경남지역의 漁業상태는 오히려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漁村民이 많다. 특히 충남, 전북에서는 좋다고 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당해 지역의 漁業經營상태는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설문 15 : 당신은 앞으로도 어업을 계속할 생각입니까 ?

- ① 계속한다 84.5%
- ② 모르겠다 9.1%
- ③ 그만 둔다 5.6%
- ④ 그만 두었다 0.4%
- ⑤ 무응답 0.4%

漁業을 계속한다는 漁村民이 85%나 되는 것으로 보아 漁村의 특징은 漁業事業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미 漁業을 포기하였거나 금후 漁業을 포기하고자 하거나 고려중에 있는 자도 있는 것으로 보아 漁業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설문 15-1 : 계속한다는 이유는 ?

- ① 연령상 전업이 어렵다 26.3%
- ② 양식업을 하고 싶다 18.8%
- ③ 지금와서 새삼스럽게 다른 직업을 가지고 싶지 않다 15.5%

- ④ 어업이외의 겸업을 한다 12.2%
- ⑤ 신체의 건강이 허용하는 한 어업을 한다 8.6%
- ⑥ 하기에 따라서는 장래성이 있다 8.4%
- ⑦ 어업에 자신이 있다 6.0%
- ⑧ 어업을 계속하면 생활 걱정은 없다 2.1%
- ⑨ 어업은 조상전래의 천직이기 때문이다 1.8%
- ⑩ 기타 0.3%

漁村民들중에는 건강상(연령상), 經濟상의 이유와 漁業 특유의 매력때문에 漁業을 계속하겠다는 보수적 사고에 지배되고 있으므로 轉職할 의사를 가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漁業의 매력으로서는 수익성이 높은 養殖業 등 인기업종으로 전환하거나 혹은 漁業을 主業으로 하면서 수익성있는 부업(農業) 등으로서 漁家所得 증대를 도모하겠다는 보수적 안정적 사고에서 현실을 타개하려는 노력의 일면을 볼 수 있다.

설문 15-2 : 어업을 계속하는데 어떤 새로운 계획이 있습니까?

- ① 현재의 어업을 계속한다 33.9%
- ② 어업경영 규모를 확대한다 33.9%
- ③ 다른 종류의 어업으로 전환한다 29.3%
- ④ 어업경영 규모를 축소한다 2.9%

漁村民들 중에는 漁業을 영위하는 한 현상유지와 규모확대에 노력하거나 혹은 事業 소득율이 높은 他漁業으로 전환하겠다는 사람들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분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 15-3 : 경영 규모를 확대하는 방법은?

- ① 양식어업을 하겠다 43.3%
- ② 어선의 대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 16.5%
- ③ 일관 사업으로서 제조가공업도 하고 싶다 11.2%
- ④ 다른 어업으로 확대한다 10.8%
- ⑤ 근해 어업을 하겠다 5.8%
- ⑥ 어선 선주가 되고 싶다 5.0%
- ⑦ 2통 이상으로 확대 경영하고 싶다 5.0%
- ⑧ 기타 2.4%

앞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 經營 規模의 확대를 희망하는 사람들중 가장 많은 것은 養殖漁業을 희망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그간 정부에서 잡는 漁業에서 기르는 漁業으로 指導한 데도 영향이 있겠으나 그보다도 養殖業이 漁船漁業에 비하여 수익성과 확실성의 정도가 높아 經營에 안전성이 있는데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지역적으로는 養殖條件이 좋은 전남, 경남지방의 漁民들 사이에서 희망자가 많다. 그 외에 영세漁業者들 중에는 소득증대책으로서 관광漁業(낚시꾼에 漁船賃貸)을 희망하는 자도 있으며 漁業被傭者들 중에서는 船主(事業者)가 되는 것을 유일한 희망으로 하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

설문15-4 : 다른 어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직종은?

- |                       |       |
|-----------------------|-------|
| ① 양식어업                | 42.3% |
| ②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 | 14.9% |
| ③ 소형정치어업              | 13.3% |
| ④ 그물(網)어업             | 11.2% |
| ⑤ 근해어업                | 8.3%  |
| ⑥ 주낙(낙시)어업            | 6.2%  |
| ⑦ 기타 어업               | 3.8%  |

漁業과 養殖業으로 크게 대별한다면 漁業에의 전환 희망자가 약간 많으나 養殖業에의 전환 희망자가 약 절반에 육박한다는 것은 주시할 일이다. 그리고 漁業內의 전환은 網漁業種類가 많다. 특히 漁場條件이 좋은 전남, 경남지역 漁村民들에 養殖業과 網漁業 희망자가 많이 나타나 있다.

설문 16 : 최근 2~3년 동안에 품팔이 간 일이 있습니까?

- |      |       |
|------|-------|
| ① 없다 | 63.3% |
| ② 있다 | 36.7% |

우리나라에 있어서 많은 漁民은 품팔이할 것도 없이 漁業經營에 전념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漁民들은 품팔이로 소득증대에 노력하고 있다.

漁村에서 품팔이는 被傭漁夫나 漁業經營 失敗의 漁業者 또는 季節漁業者들에게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중에서도 영세한 季節漁業者에게는 불가결의 대상이다. 따라서 漁業者들에 품팔이 곧 被傭勞動이 많다는 것은 漁業의 영세성과 불안정성을 뜻하는 것이다.

설문 16-1: 품팔이나간 일이 있는 경우

(A) 그 지역은? (선원으로 승선한 것도 포함)

- |                            |       |
|----------------------------|-------|
| ① 거주지역인 시·군내               | 62.4% |
| ② 거주지역의 시·군을 벗어난 도내의 타군 지역 | 18.8% |
| ③ 도외 지역                    | 5.9%  |
| ④ 원양어선 승선                  | 10.9% |
| ⑤ 기타 해외취업                  | 2.0%  |

漁業者로서 품팔이의 경험은 대부분의 경우 거주지와 근거리에서 하고 있으며 국내의 원거리 지역보다는 차라리 遠洋漁船 또는 해외취업에 종사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遠洋漁船이나 해외취업은 그 기간이 1년이상 2~3년 정도인 것으로 보아 이에는 漁業失敗者와 被傭漁失로서 事業資金 조성을 목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목적의 遠洋漁船員 또는 해외취업은 경남·북, 전남 강원등 비교적 漁船漁業이 발달한 지역漁民들 중에 많은 것이 특색이다.

설문 16-1: (B) 품팔이의 기간은?

- |          |       |
|----------|-------|
| ① 1개월 이내 | 39.6% |
| ② 1년이상   | 24.0% |
| ③ 2~3개월  | 21.8% |
| ④ 6개월    | 14.6% |

1년이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주로 遠洋漁業과 해외취업자이며 단기는 주로 沿近海漁業에의 취업으로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3개월 이내의 취업기간은 임시 고용으로서 季節的 취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季節취업이 과반수 이상이 된다는 것은 漁村民의 영세성과 그들의 事業(漁業)이 季節漁業이라는 것을 뜻한다고 하겠다.

설문 16-1: (C) 금후에도 품팔이나간 것입니까?

- |         |       |
|---------|-------|
| ① 그만 둔다 | 71.4% |
| ② 계속한다  | 26.4% |
| ③ 모응답   | 2.2%  |

대다수의 漁民은 품팔이를 희망하지 않고 안정된 취업과 생활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이 어려운 영세 漁業者나 被傭者는 여전히 품팔이라도 계속할 것을 희망



하고 있다고 하겠다.

설문16-2 : 품팔이나간 일이 없는 사람의 경우

- ① 금후에도 나갈 생각이 없다 84.2%
- ② 금후 나갈 생각이 있다 15.2%
- ③ 무응답 0.6%

다른 업종에 취업을 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절대다수(84.2%)는 여전히 품팔이할 의사가 없으며 소수자만이 나갈 희망을 보이고 있다.

설문16-3 : 금후 품팔이나갈 생각이 없는 이유는 ?

- ① 어업에만 전념하고 싶다 27.3%
- ② 연령이 많고 건강이 나쁘다 26.3%
- ③ 다른 사람 밑에서 종사하고 싶지 않다 17.7%
- ④ 현재의 일이 안정되어 있다 15.3%
- ⑤ 어업이 악화된다면 나가고 쉽다 6.7%
- ⑥ 나갈 필요가 없다 4.3%
- ⑦ 기타 2.4%

漁村民의 대부분은 事業者로서 성실성과 자주성이 감할 뿐아니라 漁業에의 충실과 고령 및 건강상의 이유에서도 품팔이를 싫어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현재의 漁業이 악화된다면 품팔이도 사양할 이유가 없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는 사람도 없지는 않다.

이것은 漁村에서는 품팔이가 他業에의 취업이 가장 쉬운 불황에의 대응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설문 17 : 이 지방에서는 어업자가 감소하고 있습니까?

- ① 감소하고 있다 68.4%
- ② 감소하지 않는다 23.9%
- ③ 무응답 7.7%

대부분의 漁業者들은 漁村에서 漁業者의 감소현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 전북을 제외한 기타道에서는 증가 혹은 담보상태에 있는 漁村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설문 17-1 : 감소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젊은 층이 다른 산업에 취업하기 때문에 53.6%

② 어업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46.4%

젊은 층의 타산업에의 진출현상은 비단 漁村뿐아니라 農村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공통적 현상이다. 이것은 工業化사회의 공동적 현상이라 하겠다. 여기에 못지 않게 漁業條件의 劣惡性이 거의 같은 水準으로 漁業감소의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漁村崩壞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젊은 층의 진출현상은 금후 漁業條件이 호전된다 하더라도 감소될 가능성은 보장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설문 17-2 : 어촌에 있어서 어민의 감소경향에 대하여 어민으로서 바람직한 대책은?

① 어업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63.8%

② 공장유치를 도모해야 한다 12.1%

③ 강구할 수 없다 24.1%

漁民들 자신들의 견해로서는 우선 漁業經營의 안정과 취업처의 유치라는 단순하고 일반적인 대책을 생각하고 있다. 어쩌면 이것이 최선의 처방책인 줄도 모른다. 그러나 漁民들 중에는 그러한 방법에도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체념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상당수 있다. 그것은 단순한 漁業經營對策의 해결만으로서는 금후 급변하는 젊은 세대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한다.

설문 18 : 이 지방에 공장유치를 희망하십니까?

① 유치하고 싶다 73.9%

② 유치하고 싶지 않다 25.7%

③ 무응답 0.4%

漁村民 중에는 漁村에 工場의 유치를 희망하는 자가 월등히 많으나 유치를 거부하는 자도 상당수 있다.

설문 18-1 : 많이 유치하고 싶은 이유는?

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 44.8%

② 공해없는 공장이면 좋다 27.1%

③ 일터가 생긴다 18.4%

④ 타지에 품팔이나갈 필요가 없다 9.0%

⑤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0.7%

漁民의 절대다수는 지역발전과 經濟편의상의 이유로서 當該漁村에 工場의 유치를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공해없는 공장일 경우만 원한다는 조건적 찬성자도 상당수 있다. 이것은 經濟的 윤택도 중요하지만 역시 생명에의 안전이라는 環境 우선의 의식이 상당히 높은 水準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 18-2 : 공장을 유치하고 싶지 않은 이유다?

① 어업에 지장을 초래한다 60.3%

② 공해로 환경이 파괴된다 39.7%

전항에서도 본 바와 같이 漁村民들의 職業觀이나 生活環境觀이 아주 明白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항에서 조건적 유치를 희망하는 것과 더불어 생각할 때 공해산업의 임해지구 설치도 앞으로는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된다.

설문19 : 공장이 유치된다면 당신은 거기에 일하러 갈 생각이 있습니까?

① 어한기나 휴어기에만 일하고 싶다 51.8%

② 거기에서 무조건 일하고 싶다 23.9%

③ 일하고 싶지 않다 13.2%

④ 모르겠다 7.4%

⑤ 일용 또는 임시고용으로 일하고 싶다 3.7%

漁村民들은 공장이 유치된다면 그 곳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과반수 이상(55.5%)은 되나 그것은 주로 休漁期, 漁閑期의 소득증대책이거나 여가선용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漁村지역의 공장의 설치에 이러한 노동력 흡수를 위하여 가능하다. 곧 노동력의 확보는 무조건 찬성자와 모르겠다는 사람이 다소 있는 것으로 보아 공장노동력의 잠재력은 어느정도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잠재력은 충남, 전남, 제주 경기 등 漁業이 비교적 발달된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것도 주목된다.

### 3. 公害에 대한 意識

설문 20 : 당신은 환경보존법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93.8%

② 모르고 있다 6.2%

거의 전 漁村民은 環境保護가 法律的으로 규정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설문 20-1 : 당신은 해양오염방지법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95.3%

② 모르고 있다 4.7%

생활環境뿐 아니라 漁業環境으로서의 海洋汚染防止에 대한 法的規制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생활環境이나 事業(漁業)環境의 규제에 대하여 관심이 대단히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설문21: 당신은 최근 4~5년간에 공해로 인하여 어업피해를 본 일이 있습니까?

① 있다 67.9%

② 없다 27.7%

③ 무응답 4.4%

전국 海岸에 걸쳐 생각보다 海洋汚染에 의한 漁業被害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문 21-1: 있다면 다음의 어느 것입니까?

① 수질(하천, 바다)의 오염 35.8%

② 유탁 33.2%

③ 악취 7.5%

④ 대기오염 5.3%

⑤ 토양오염 4.3%

⑥ 진동 2.7%

⑦ 지반침하 1.1%

⑧ 기타 5.3%

⑨ 모르겠다 4.8%

漁村의 環境汚染이 다양하며 특히 水質과 油濁에 의한 汚染이 크다는 것(약 70%)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금후의 漁業문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이러한 汚染은 특히 전남, 경남지역의 海岸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주목된다.

설문 21-2: 공해의 발생 원인은 무엇입니까?

① 사업활동(공사) 34.1%

② 많은 원인으로 특정한 것을 지정하기 곤란하다 31.3%

③ 교통기관이다 13.7%

④ 하수 진개이다 11.5%

⑤ 인근의 가정생활이다 5.0%

⑥ 기타 4.4%

여기에서 各種의 公害원인은 産業과 生活排水 排棄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문 22 : 공해때문에 어떠한 피해를 받았습니까?

① 양식 피해 57.0%

② 어업 피해 28.2%

③ 인체 피해 14.8%

養殖業과 漁業上의 被害 뿐아니라 인체상의 被害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被害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설문 23 : 어업과 양식업의 피해금액은(단위 : 십만원) ?

응답자의 총합계 금액은 1,821,800천원이며 그 중 養殖業 1,350,800천원, 漁業 471,000천원으로 養殖被害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경남과 전남이 가장 많고 거의 같은 水準이나 경남의 경우는 漁業과 養殖業에서 거의 동일한 수준의 피해를 받고 있는데 대하여 전남은 주로 養殖業에서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이것을 漁業(養殖業포함)件 1件當 평균 피해금액으로 환산하여 道別 상황을 보면 <表·2>와 같다.

<表·2>

漁業件當被害金額表

(單位 : 千圓)

지역	구분	被害金額(漁業養殖業)	漁業件數
강	원	12,500	2
전	북	12,000	3
전	남	7,428	4
경	북	1,833	5
경	남	19,650	1
제	주	250	6

資料 : 本調査에서 작성 (1981).

#### 4. 漁船에 대한 意識

설문 24 : 소유어선은 몇 톤입니까?

① 1~5톤 85.4%

② 50톤 이상 4.4%

③ 6~10톤 3.9%

④ 11~20톤 3.9%

⑤ 21~50톤 2.4%

10톤 미만 漁船이 約 90% 그 중에서도 5톤 미만이 85.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沿岸漁民이 소규모 영세漁業을 營爲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고 하겠다.

우리 漁村에서는 10톤~50톤의 중간 계층에 속하는 漁船이 적고 50톤 이상의 대형 漁船은 제주와 충남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는 비교적 고루 분포하고 있다. 또한 11~50톤의 중형 漁船은 제주, 전남북, 충남, 경기지역에서 비교적 적게 나타나 있다.

설문 24-1 : 당신의 어업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선원)의 수는 몇 명입니까?

① 1~10인 80.6%

② 11~20인 8.5%

③ 50인 이상 6.5%

④ 31~50인 2.4%

⑤ 21~30인 2.0%

우리나라의 沿岸漁村에서는 漁船漁業이나 養殖漁業을 막론하고 종사원 10인 이내의 소규모 업체가 많고(80%) 종사원수 20인 이상의 업체는 주로 大型定置網漁業과 大型鰵鰵網漁業 및 오징어漁業으로 나타나 있다.

설문24-2 : 조업장소는 거주하는 부락에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① 5km 미만 63.9%

② 5~10km 12.5%

③ 50km 이상 10.0%

④ 11~20km 8.4%

⑤ 21~50km 5.2%

沿岸漁船들은 주로 20km 미만의 沿岸漁場에서 一日操業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0km 이상 50km 이내의 操業漁場과 50km 이상의 遠거리 漁場을 비교할 때 거의 같은 水準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資源과 관계가 있다. 漁民들에 의하면 資源은 沿岸에 接近해 있던가 아니면 한바다(50km 이상을 지칭함)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漁場距離에 따라 漁船規模도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설문 25 :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어선은 발동기(기관)와 아우트 모타(자동 모타)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 ① 설치하고 있다 58.3%
- ②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33.7%
- ③ 무응답 8.0%

漁村民의 所有漁船은 과반수 이상이 動力船임을 알 수 있다.

설문 25-1 : (A)어선에 설치된 기관의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 ① 디젤엔진 33.2%
- ② 경운기엔진 7.8%
- ③ 양수기엔진 7.2%
- ④ 기타 51.8%

沿岸漁船에 설치된 機關種類的의 다양성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단일종으로서 인기 있는 機種은 디젤機關이다. 기타 種類중에는 경운기 및 육상용 엔진을 설치한 것이 대부분이나 특히 경운기가 많았다(경운기로 명시하지 못한 것은 수산청규정에서 동력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 한다) 경운기를 많이 설치한 이유는 영세성에 기인한다.

설문 25-1 : (B)몇 마력입니까?

- ① 1~10마력 54.3%
- ② 21~50마력 19.9%
- ③ 11~20마력 19.2%
- ④ 51~100마력 2.7%
- ⑤ 101~200마력 2.0%
- ⑥ 200마력이상 1.9%

沿岸漁船은 10마력이하의 소형기관을 설치하고 있는 動力船이 과반수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전남, 경북 경남의 南海岸지역에서 거의 전부를 점하고 있다.

설문 25-2 : 동력을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는?

- ① 돈이 없어서 40.4%
- ② 배가 너무 작아서 27.3%
- ③ 배가 낡아서 18.2%
- ④ 기름값이 비싸서 5.1%

⑤ 돈은 있으나 적당한 기관을 고르지 못해서 4.0%

⑥ 기타 5%

沿岸漁村民에 있어서 漁船動力化를 못한 이유로서는 資金부족과 船體의 결함이 거의 같은 비율로 나타나 있다.

설문 26 : 돈이 없어서 어선에 기관설치를 하지 못한다면, 돈을 저리로 대부하여 준다면 설치하겠습니까?

① 설치하겠다 55.8%

② 설치하지 않겠다 5.3%

③ 무응답 38.9%

資金 부족자의 과반수 이상은 低利融資金이 있으면 利用하여 動力化하겠다고 생각하나 일부 漁村民들은 그러한 저리융자라도 망설이는 자가 적지 않다. 그 이유는 漁業의 장래성이나 전망이 흐리기 때문에 現狀維持나 하다 그만 두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설문 26-1 : 대부금액은 최고 어느 정도까지 희망합니까?

① 200만원 27.1%

② 300만원 25.2%

③ 100만원 21.3%

④ 500만원이상 18.9%

⑤ 400만원 7.5%

資金支援을 원하는 漁村民들도 대부분 (73.7%) 300만원이하의 소액 施設資金을 원을 원하고 있다.

설문 26.2 : 대부금에 대한 상환계획이 있습니까?

① 상환계획이 있다 78.1%

② 없다 6.1%

③ 조건대로 하겠다 15.9%

결국 전항과의 관계에서 보면 300만원 정도의 規模라면 대부분 해주면 상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小型船의 機關設置를 위한 低利支援금융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설문 26-3 : 당신은 현재의 어업수입으로 보아 한달에 이자를 최고 어느 정도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까?

- ① 1~10만원 73.9%
- ② 11~20만원 9.9%
- ③ 21~50만원 11.7%
- ④ 51만원이상 4.5%

漁村民 대다수(73.9%)는 月 10만원 정도의 이자부담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現行 貸付利率(10%)라면 1,000만원 규모의 資金을 利用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漁業의 不規則性을 고려할 때 300만원 정도의 借入에는 元利金상환이 무난할 것으로 생각된다.

설문 27 : 당신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선에는 부족한 점이나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 ① 있다 43.9%
- ② 없다 16.5%
- ③ 무응답 39.6%

현재의 사용漁船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부족이나 결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漁民도 상당수 있다.

설문 27-1 : 어떤 점이 부족하고 불편합니까?

- ① 어선이 소형이고 노후하다 44.8%
- ② 기관장비의 미비 27.2%
- ③ 동력선이 아니다 9.6%
- ④ 방파제, 항구, 포구의 미비 3.2%
- ⑤ 기타 15.2%

노후漁船의 대체와 小型船의 확대 및 動力化등 漁船의 근대화가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한편에서는 漁船근대화의 기반으로서 먼저 港口의 조성과 그 施設의 整備를 요구하고 있다.

설문 28 : 당신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선의 크기는 적당합니까?

- ① 더 컸으면 좋겠다 59%
- ② 적당하다 33.2%
- ③ 무응답 7.8%

많은 漁村民은 漁船의 대형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전남 제주 경남북동의 南海岸지역 漁村民에 의하여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설문 28-1 : 어느 정도 크기면 좋겠습니까?

- ① 2~4톤 44.4%
- ② 1톤미만 17.9%
- ③ 4~6톤 15.1%
- ④ 8~10톤 7.8%
- ⑤ 10~20톤 6.9%
- ⑥ 6~8톤 3.9%
- ⑦ 20~50톤 3.4%
- ⑧ 50~70톤 0.6%

漁村民이 원하는 漁船의 規模는 6톤급 이하의 小型船이 대부분(77%)이다. 漁民에 의하면 小型漁船은 주로 養殖業에 종사하는 作業船이며 漁船漁業에서는 漁船規模가 아주 크든가 그렇지 않으면 5~6톤 이하의 小型船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資本문제보다도 資源문제에서 沿岸漁業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5톤급 이하의 小型船을 요구하는 이유의 하나는 5톤이상일 경우 檢査 기타 行政上의 각종 요구가 많아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고 더욱 10톤 이상일 때는 無電機設置등 더욱 강력한 行政規制와 漁場의 遠隔性 資源涸竭등에서 오는 漁業收支惡化 때문이라 한다.

설문 29 : 어선이 커야 할 이유는?

- ① 작은 배로는 작업에 위험이 많다 40.5%
- ② 현재의 배가 낡았기 때문에 교체시에 이왕이면 크게 하는 것이 좋겠다 27.3%
- ③ 어장이 멀기 때문에 배가 커야 한다 25.5%
- ④ 자원이 많기 때문에 더 잡아야 한다 6.7%

漁船의 大型化를 요구하는 이유로서는 安全操業, 漁場의 遠隔性이 주요 이유이며 資源 利用의 이유는 아주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설문 30 : 희망하는 어선의 크기를 소유할 수 있는 자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 ① 자금이 있다 13.6%
- ② 없다 86.4%

대다수의 漁村民에게는 漁船의 大型化를 위한 資金能力이 없다.

설문 30-1 : 그러면 부족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 ① 있다 30.4%
- ② 없다 69.6%

漁民은 새로운 漁船建造를 위한 個人資本의 축적이 어려움과 동시에 他人資本도 조달할 수 있는 能力이 없는 자들이 대부분이다.

설문 31 : 당신의 어촌 근해에는 자원이 많이 있습니까?

- ① 많이 있다 35.8%
- ② 많이 없다 28.1%
- ③ 모르겠다 2.8%
- ④ 무응답 33.3%

漁民들 각자의 경험에 의한 주관적인 견해이기는 하나 역시 資源凋竭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겠다. 資源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실은 자기사업과의 관계에서 실행성없는 진술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설문 31-1 : 어떤 어족(대상물)이 많이 있습니까?

- ① 오징어, 문어 13.2%
- ② 멸치, 꽁치 12.2%
- ③ 굴, 백합 12.2%
- ④ 새우, 게 8.1%
- ⑤ 부서 5.1%
- ⑥ 넙치, 가자미 4.6%
- ⑦ 조기 4.0%
- ⑧ 뱀치 3.5%
- ⑨ 칼치 3.1%
- ⑩ 해삼 3.1%
- ⑪ 명태 1.6%
- ⑫ 고등어 1.5%
- ⑬ 기타 28.0%

魚種資源보다는 기타動物資源이 많으며 또한 高級 또는 大量生産의 資源이 결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남, 경북, 경남, 강원지역에서는 각 魚種이 고루 분포하고 있었으나 경기, 충남, 전북, 제주등에서는 2~3種類에 국한하고 있음

으로서 資源고갈이 심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설문 40 : 당신의 거주지역에서 소형어선의 건조는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 ① 목수를 고용하여 바닷가 공지에서 직접 건조한다 57.4%
- ② 조선소에 위탁건조한다 24.3%
- ③ 무응답 18.3%

漁村民의 小型漁船建造는 대체로 自家建造이며 造船所에 委託해서 建造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문41-1 : 앞으로 어선을 건조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① 목수를 고용하여 직접 건조하겠다 43.4%
- ② 조선소에 위탁건조하겠다 33.8%
- ③ 무응답 28.8%

금후 漁船建造를 하더라도 造船所 委託建造보다는 목수를 고용하여 自家建造를 希望하는 사람이 많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 이유는 造船所에서는 사용자의 요구에 順應하지 않는다는 것과 建造費가 많이 드는데 있다고 한다.

#### Ⅳ. 要 約

이상에서 集計考察한 바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① 漁村에 대한 意識에서는 漁村民의 대부분(87.4%)은 20년이상 當該漁村에 居住하고 있으며 그중의 많은 사람은(68.8%) 出生이후 계속 居住하고 있다. 漁村이 生活의 場所로서 살기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반수 이상은 되나 좋은 곳이 못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살기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로서는 오래 산 곳이기 때문에(40.5%) 漁業이 좋고 하기 쉽다(28%) 人間性이 좋다(13.8%)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漁業의 將來性이 없고, 地理的으로 不便하며 環境이 좋지 못하다는 拒否반응도 약간 보인다.

變化하는 環境에의 適應을 위하여 거의 全漁民(96.4%)이 知識・技術의 習得을 願하고 있다. 그 內容은 漁業技術과 養殖技術이 압도적(85.0%)으로 많고 드물게는 無線通信士, 自動車運轉등의 技術을 願하는 사람도 있다.

地域社會의 協同關係에 대하여는 거의 全漁村民(99%)이 各種모임에 參席하고 있다. 種類別로는 漁民의 經濟團體나 部落 및 班常會등의 會議에의 參席이 많다. 漁

民 1人은 平均 3~4種의 모임에 參席하고 있다.

子息들에 대하여는 漁村에 살기를 希望하는 漁民은 과반수를 좀 넘으나 살기를 希望하지 않는 사람도(39.1%) 상당수 있다. 살기를 希望하는 理由로서는 郷土의 發展, 祖上을 지켜주기 위하여, 老後의 委託을 위하여, 정든 땅이기 때문에 등 다양한 하나 일부 漁民은 子息들의 自由意思에(30.9%) 依存하고 있다. 같이 살기를 希望하지 않는 理由로서는 漁業은 將來性이 없으므로 他業으로 轉業해야 한다(56.4%)가 과반수 이상이고 그형에 漁業人口의 過密을 방지하기 위하여이다(13.7%), 젊은 층의 發展을 위하여 널리 經驗을 쌓아야 한다, 다시 돌아오는 한이 있어도 일단 漁村을 뜨는 것이 좋다는등 人道的·教育的인 思考를 가지는 사람도 더러 있다.

本人에 대하여는 絶對多數者(95.1%)가 漁村에 계속 살기를 원하고 있다. 그 理由로서는 일할 수 있는 동안 漁村에 살고 싶다(24.1%) 지금와서 他地로 가고 싶지 않다(22.3%) 漁業도 하고 살기도 좋다(14.4%) 漁業을 계속하고 싶다(12.5%) 祖上의 땅을 지키고 싶다(10.0%) 나이와 건강이 전출을 허용하지 않는다(9.72%) 서로의 마음이 잘 통한다(5.96%) 등 多樣하다.

對人關係에서는 全漁村民(97.3%)은 大小家間의 交流를 여전히 계속하고 있으며 그외의 家庭과도 거의 全漁村民(90.5%)이 圓滑한 交流를 하고 있다. 協業에 있어서는 대다수(75.2%)가 하고 있으며 그 對象은 주로(61.4%) 同一業種의 業者間에 하나 人間關係에서 하는 경우도(32%) 상당수 있다. 重要事項의 協議는 주로 血緣關係(48.3%)와 部落有志, 職場同僚(49.5%) 등과 하고 있다.

漁民의 生活程度에서는 T.V.(45.5%) 電話(20.2%) 冷蔵庫(19.9%) 등 文化利器의 利用者가 제법되며 機械農業을 위한 경운기의 所有者(7.8%)도 더러 있다. 漁家の 年間所得은 대부분(68.4%)이 300萬원 이하에 머물고 있다.

② 漁業에 대한 意識에 있어서 沿岸漁村民이 營爲하는 事業은 주로 漁業과 養殖業이며 그 比重은 거의 同一하다. 養殖業은 해태·미역(36.5%) 굴·피조개(11.2%) 양식이 많고 漁業에서는 流刺網(12.6%) 延繩(12.3%) 채낚기(6.14%) 정치망(4.7%) 刺網(3.2%) 연안통발(2.9%) 등 多樣하다.

漁業에 대한 職業觀은 보람있다(47.7%)는 사람이 절반도 못되며 다른 職業이 좋다(25.3%) 어떤 職業이든 그것을 自己의 天職으로 생각한다(14.4%)는 사람도 들어 있다. 다른 職業이 좋다는 이유로서는 漁業은 將來性이 없다(36.5%) 앞으로 漁業만으로 먹고 살 수 없다(34.4%)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뿐이다(22.5%)를 들고 있다.

漁業者 後繼者에 대하여는 자식들에게 漁業을 시키고 싶지 않다(55.8%)는 사람

이 과반수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20.7%)는 사람도 있으나 漁業을 시키고 싶다는 사람이 아주 적다. (14.4%)

최근의 漁業經營狀況에 대하여는 좋아졌다(38.6%) 나빠졌다(37.9%)는 사람이 거의 같고 전과 同一하다(17.2%)는 사람도 제법 있는 것으로 보아 최근 수년간의 漁業經營狀況은 담보상태에 있다고 하겠다.

금후 漁業의 계속여부에 대하여는 대부분(84.6%)의 漁村民은 계속하기를 希望하고 있다. 그 이유로서는 年齡이 많고 健康이 좋지 않다(29.1%) 지금와서 다른 職業을 가질 수 없다(15.6%) 養殖業(18.9%)이나 兼業(12.3%)을 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한다. 漁業을 계속한다는 이유로서는 현상유지(33.9%), 經營規模의 擴大(33.9%), 다른 漁業으로 轉換한다(29.3%)는 사람이 비교적 고루 分布하고 있으나 經營規模의 축소를 희망하는 者(2.9%)도 있다.

漁業者의 品팔이(被傭勞動)는 일부(36.7%)의 사람은 경험하고 있으나 많은 사람은(63.95%)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品팔이 나가는 地域은 居住地의 市郡內(62.4%)와 道內(18.8%)가 많고 일부 漁民은 遠洋漁船이나 海外就業(12%)을 한 일이 있다.

漁業人口에 대하여는 대다수의 漁村에서(68.4%) 감소하고 있으나 감소하지 않는 漁村(23.86%)도 상당수 있다. (무응답 7.72%) 감소대책으로서는 漁業經營의 安定化(63.76%)가 많고 工場유치(12.1%)는 생각보다 적다. 거기에 별대책이 없다(17%)고 絶望的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제법 있다. 工場유치를 찬성하는 사람이 비교적 많다(73.9%) 그 이유로서는 地域發展(44.8%), 就業이 가능하고 品팔이나잔 필요가 없다(27.4%)를 들고 있으나 條件附로 公害없는 工場유치를 원하고 있는 사람(27.09%)도 제법 있다. 工場유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漁業에 지장을 초래한다(60.3%) 公害로 인해 環境이 오염(39.7%)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③ 公害에 대한 意識에서는 水質汚染, 大氣汚染, 土壤汚染, 振動, 地盤沈下 등 고루 있음을 알고 있다. 漁村에서는 거의(70%) 水質汚染이 많다. 公害發生의 原因으로서는 産業(工事)(34.1%), 많은 복합적 원인(31.3%), 交通機關(13.7%), 下水(11.5%) 生活排棄物(4.95%) 등을 들고 있다. 公害에 의한 被害는 養殖業(57%) 漁業(28.2%) 등 産業被害가 많으나 人體被害(14.8%)도 있다.

④ 漁船에 대한 意識에서는 漁村民의 所有漁船은 대다수(85.4%)가 5톤미만船이며 船員은 대부분(80.6%)이 10人이하로 구성되고 있다. 漁船의 操業場所는 과반수이상(57.7%)이 沿岸에서 20km 이내에 있다. 動力船은 과반수이상(58.3%)되나 無動力船도 여전히 많다. 動力化하지 못하는 理由로서는 資金이 없고(40.4%) 小

型船이며 (27.3%) 老朽船(18.2%)이기 때문이라 한다.

漁村民이 希望하는 漁船規模는 대부분(77%)이 6톤이하의 小型漁船이다. 그 理由로서는 作業上(40.6%) 老朽船代替(27.3%) 漁場距離(25.5%) 등을 들고 있다. 動力化나 大型化를 위하여 資金이 없는 경우(86.4%) 低利資金의 融資을 希望하는 사람이 과반수이상(55.8%)된다.

漁船建造에 대하여는 많은 사람(57.4%)이 木手를 고용하여 自家建造를 希望하며 造船所에 委託建造하는 것을 願하지 않는다. 그 理由는 資金과 便宜上의 問題로 생각된다.

## V. 結 論

이상의 要約에서 볼 때 먼저 結論的으로 말한다면 漁村民은 變化하는 環境에 適應하려고 하는 갈등속에 살고 있다고 하겠다.

高度經濟成長下에 있어서 漁村社會는 傳統的인 地域社會로서 면모를 완전 상실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점차 脫皮하여 가고 있다. 傳統性은 血緣的 地緣的인 共同社會의 側面에서만 강하게 유지되고 있을 뿐 生業的 經濟的 側面에서는 年齡上, 健康上의 理由에서 겨우 지탱하고 있다. 따라서 生業的, 生活的 環境으로서의 優位性이나 效率性에서는 이미 그 維持力을 상실하여 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금후 漁村對策은 傳統的인 地域社會의 매력이나 有利性을 어떻게 近代化(合理化)하여 가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곧 漁村을 近代的 組織으로 再編成(再構造化)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먼저 漁業者의 生産機構를 安定化하고 生活體系를 近代化시키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具體的인 對策이 政策的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곧 環境變化에 필요한 新技術의 習得과 精確한 情報入手制를 確立하도록 하고, 地域的 特性을 고려한 周年漁業體制의 確立, 漁業勞動力 確保를 위한 諸條件의 정비, 漁業公害가 없는 產業(工場)의 도입, 필요한 資本의 효과적 합리적 投資方法의 確立, 漁村後繼者養成策의 確立, 協同社會의 維持促進을 위한 地域組織의 強化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